

청년층 음주자의 절주 권고 여부에 따른 흡연율

김승대*

*위덕대학교 보건관리학과

e-mail:sdkim@uu.ac.kr

Smoking rate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of temperance of alcoholic drinking
in young alcoholic drinkers

Seung-Dae Kim*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Uiduk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음주 수준이 위험하여 절주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청년층은 다른 불건강 행태도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흡연율을 중점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 음주자의 절주 권고 여부에 따른 흡연율을 파악하여 절주 권고 수준의 고위험 음주 수준이 흡연과의 연쇄적 불건강 행태를 감소시킬 방안에 대한 건강증진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도 원시 자료 대상자 7,992명 중에서 연구변수에 따른 만 20-39세의 청년층만을 추출한 결과 1,622명이 최종 분석 대상자였다. 청년층 음주자 중에서도 절주 권고 여부에 따른 흡연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절주 권고를 받은 대상자의 흡연율은 48.1%, 과거 절주 권고 있었던 경우 흡연율은 23.2%, 절주 권고가 없는 경우 흡연율은 22.5%였다. 이 결과를 보아 청년층 중에서도 절주 권고를 받을 정도의 고위험 음주를 하는 대상자는 지금이라도 음주 수준을 낮추어 최소 1년 이상은 절주 권고를 받지 않도록 한다면 흡연율도 감소될 것이라 판단되며, 절주 권고를 받은 고위험 음주를 하는 청년층들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진단과 접근에 있어서 흡연이나 또 다른 불건강 행태가 없는지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제는 단일 요인으로서 불건강 행태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건강행태 간의 연쇄적이고 다각화된 방식으로 불건강 행태 발생을 개선할 기법이 필요하다.

Keywords: 절주 권고, 건강행태, 건강증진, 음주실태, 흡연율

1. 서론

적당한 음주는 순기능을 가져오지만 이에 대한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음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음주자들은 음주 정도에 대한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음주에 대해서 만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는 사건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그러한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한 알코올 음료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와중 과도한 음주행태를 가진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과 사회의 문제보다 더욱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고도음주로 인한 질병부담을 측정한 연구[1]에서는 남자의 경우 간경변증이 26.7%, 여자의 경우 뇌경색증이 31.9%로 고도음주로 인해 질병부담의 크기가 가장 컸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청년층 중에서도 특히 대학생의 90% 이상이 음주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2~77%가 폭음을 즐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 이처럼 청년층과 대학생의 음주실태는 최근까지도 심각한 수준인데 선

행연구[3]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에서 음주량이 많은 음주군은 흡연량 역시 많았으며, 신체활동량은 낮은 등 건강상태에 불리한 불건강 행태를 많이 할수록 또 다른 불건강 행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악화나 순환기계 질환(뇌졸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가 단위의 건강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도 원시 자료를 통해서 최근의 청년층 음주에 따른 흡연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이 연구는 음주 수준이 위험하여 절주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청년층은 다른 불건강 행태도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흡연율을 중점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 음주자의 절주 권고 여부에 따른 흡연율을 파악하여 절주 권고 수준의 고위험 음주 수준이 흡연과의 연쇄적 불건강 행태를 감소시킬 방안에 대한 건강증진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도 원시 자료[4] 대상자 7,992명 중에서 연구변수에 따른 만 20-39세의 청년층만을 추출한 결과 1,622명이 최종 분석 대상자였다.

2.2 연구변수

종속변수인 흡연율은 평생 5갑 이상 담배를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자를 흡연자로, 과거 흡연 및 비흡연은 비흡연자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변수의 선정에서 일반적 특성은 성별(남자, 여자), 연령(20-29세, 30-39세), 가구소득(상, 중상, 중하, 하), 교육수준(대졸 이상, 고졸 이하), 직업(비육체적 직업, 육체적 직업, 직업 없음)을 포함하였다.

음주 여부의 경우 최근 1년간 월 1잔 이상 음주한 경우가 있다면 음주자로 구분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음주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음주자 중에서도 최근 1년 이내에 절주 권고를 받은 사람을 절주 권고 있음, 과거에 절주 권고를 받은 사람을 과거 절주 권고 있었음, 절주 권고가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오픈 소스 통계 소프트웨어인 R 3.6.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음주 여부, 흡연 여부, 음주자 중 절주 권고 여부, 음주자 중 흡연율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청년층 음주자 중 절주 권고를 받은 여부에 따른 흡연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χ^2 test)를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인 청년층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중 남자 46.4%, 여자 53.6%였고, 연령은 20-29세 46.1%, 30-39세 53.9%였다. 가구소득은 상이 36.1%, 중상 31.3%, 중하 24.6%, 하 8.0%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60.9%, 고졸 이하는 39.1%였다. 직업은 비육체적 직업 55.5%, 육체적 직업 11.8%, 직업 없음은 32.7%였다 [표 1].

3.2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 특성

대상자인 청년층의 음주 및 흡연 특성은 음주 여부 중 음주자 66.0%, 비음주자 34.0%였으며, 흡연 여부는 흡연자 21.9%, 비흡연자 78.1%였다. 음주자 중에서 절주 권고 여부는 절주 권고가 최근 1년 이내에 절주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17.3%, 과거에 절주 권고가 있었던 경우는 8.9%, 절주 권고가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빈 도(%)
성별	남자	753(46.4)
	여자	869(53.6)
연령	20-29세	747(46.1)
	30-39세	875(53.9)
	가구소득	
	상	585(36.1)
	중상	508(31.3)
	중하	399(24.6)
	하	130(8.0)
교육수준	대졸 이상	987(60.9)
	고졸 이하	635(39.1)
직업	비육체적 직업	900(55.5)
	육체적 직업	191(11.8)
	직업 없음	531(32.7)
전 체		1,622(100.0)

[표 2]. 대상자의 음주 및 흡연 특성

	변 수	빈 도(%)
음주 여부	음주자*	1,071(66.0)
	비음주자	551(34.0)
흡연 여부	흡연자	356(21.9)
	비흡연자	1,266(78.1)
전 체		1,622(100.0)
음주자 중 절주 권고 여부*	절주 권고 있음	185(17.3)
	과거 절주 권고 있었음	95(8.9)
	절주 권고 없음	791(73.9)
음주자 중 흡연율†	흡연자	289(27.0)
	비흡연자	782(73.0)
전 체		1,071(100.0)

[표 3]. 대상자의 음주자 중 절주 권고 여부에 따른 흡연율

변 수	흡연자	비흡연자	전 체	$\chi^2(p)$
음주자 중 절주 권고 여부				
절주 권고 있음	89(48.1)	96(51.9)	185(100.0)	50.665(<.001)
과거 절주 권고 있었음	22(23.2)	73(76.8)	95(100.0)	
절주 권고 없음	178(22.5)	613(77.5)	791(100.0)	
전 체	289(27.0)	782(73.0)	1,071(100.0)	

없는 경우 73.9%였다. 음주자 중 흡연율은 흡연자 27.0%, 비흡연자 73.0%였다 [표 2].

3.3 대상자의 음주자 중 절주 권고 여부에 따른 흡연율
대상자인 청년층의 음주자 중 절주 권고 여부에 따른 흡연율은 절주 권고가 있는 경우의 흡연율이 48.1%, 과거 절주 권고가 있었던 경우 23.2%, 절주 권고가 없는 경우 22.5%였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 3].

4. 고찰 및 결론

이 연구결과 청년층 중에서도 최근 1년 이내 절주 권고가 있었던 대상자는 흡연율이 48.1%로 과거에 절주 권고가 있었던 경우(23.2%) 절주 권고가 없는 경우(22.5%)보다 흡연율이 높아지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절주 권고를 받을 정도의 고위험 음주 수준은 흡연율을 높였다. 하지만 과거 절주 권고를 받았던 경우와 절주 권고가 없는 경우는 흡연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청년층 중에서도 절주 권고를 받을 정도의 고위험 음주를 하는 대상자는 지금이라도 음주 수준을 낮추어 최소 1년 이상은 절주 권고를 받지 않도록 한다면 흡연율도 감소될 것이라 판단되며, 절주 권고를 받은 고위험 음주를 하는 청년층들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진단과 접근에 있어서 흡연이나 또 다른 불건강 행태가 없는지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층의 고위험 음주는 젊은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뇌기능 저하와 절제력의 저하로 또 다른 불건강 행태를 불러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므로, 이제는 단일 요인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해 불건강 행태 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악순환의 시너지가 연계되는 불건강 행태에 대해서 연쇄적이고 다각화된 방식으로 불건강 행태가 발생하는 현상을 바로잡는 방식의 건강증진 기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J. K. Lee, Y. I. Kim, S. J. Yoon, J. Y. Lee, H. Y. Lee, J. H. Park, Y. S. Shin, Estimating the Burden of Disease due to High Alcohol Consumption in Korea, *J Prev Med Public Health*, 38(2), pp.175-185, 2005.

<https://www.jpmp.org/journal/view.php?year=2005&vol=38&page=175>

[2] J. H. Kim, S. H. Kang, G. Y. Koh, K. H. Kim, H. J. Kim, B. S. Park, H. T. Park, S. J. Yoon, H. N. Lee, K. H. Choi, H. S. Chu(2018). The health care of undergraduate students, *Medical science*, 2018.

[3] E. J. Kang, Clustering of Lifestyle Behaviors of Korean Adults Using Smoking, Drinking, and Physical Activi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7(2). pp.44-66, 2007. https://academic.naver.com/openUrl.naver?doc_id=13609541&linkType=doclink

[4] KCDC,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I-3), 2018.